어디서 많이 본 장면

윤휘종의 잠시 쉼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악수를 하고 테이프커팅을 한다. 서로 밝은 얼굴로 덕담도 주고받는다."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뉴델리 인근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만났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공식행사 외에도 별도로 약 5분간 이 부회장과 '독대'를 하며 "한국에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번 만남이 예정됐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나는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약 5년 전인 2013년 6월 30일,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을 당시 이 부회장은 청와대 호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접한 바 있다. 그 때도 지금과 분위기가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 뒤 삼성과 당시 정부는 빠르게 친해졌으며 2014년 9월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 부회장이 몇차례나 90도까지 꺾어지는 인사를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기업하는 게 정말 힘들겠다'는 걸 다시 엿볼 수 있었다. 90도의 깍듯한 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옥살이까지 겪은 이 부회장의 트라우마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부를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만남도 청와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때도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대가로 이 부회장은 '적폐세력'으로 몰렸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왔다. 삼성의 수십만 관계사 임직원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다니는 게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는 푸념도 들렸다.

이번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는 반발도 있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일부에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 알레르기의 이유가 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재계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중국 기업들과 1%의 시장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다. 중국 시장은 이미 중국 토종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시장을 모조리 빼앗겼다.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통틀어 우리 경제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틈바구니에 끼어 한 치 앞도 못보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반(反)기업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신임 금감원장이 은행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은행들과 '전쟁'을 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그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인들을 사갈시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기업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물론, 정부가 하라면 해야 한다. 그게 한국 기업인들의 숙명이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내 재계 총수 9명이 청문회에 섰던 사상 초유의 현장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왜 기업들은 정부에 '노'라는 얘기를 못하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으니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줄줄이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 사회에도 법칙이 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도 흐르는 법칙이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법칙이 있다.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리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저출산 대책? 여성의 경제력 높여야

기자 수첩

김 유 진 〈산업부〉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저출산 진행속도는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일 대통력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가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 포함됐고 약 5만명의 여성이 새로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됐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가고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도 저출산과 청년·신혼부부지원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 3만 가구로 잡았던 신혼희망타운 공급목표를 10만 가구로 늘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육아의 책임을 지는 부모의 '워라밸'을 높이는 동시에 육아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출산율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기대감이 돋보인다.

현 정부 이전에도 정부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지속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비단 '양육환경'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싶다.

물론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의 '삶의 질'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경제참여율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쓰기 전 눈치를 봐야하고, 워킹맘이라는 틀은 자부심이 아닌 죄의식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 복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 주요 요인이다.

기자는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출산 대책에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ujin6326@

인사

◆**과천시** ◇ 5급 전보 △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 건축과장 지순범 △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 별양동장 이상기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 황승호 △ 서울세관 통관국장 박계하

◆**성균관대** △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안성진 △ 국정전문대학원장 김근세 △ 창업지원단장 박천석 △ 한국사서교육원장 고영만 △ 교무처 학사지원팀장 채희철 △ 교무처 교육지원팀장 정승찬 △ 학생처 학생지원팀장 김범준 △ 산학협력단 LINC사업팀장 성기호 △ 입학처 입학전형팀장 주기희 △ 일반대학원 대학원팀장 김한기 △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장 황용근 △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과대학행정실장 서종환 △ 출판부 출판부행정실장 김병성 △ 스포츠단 스포츠단행정실장 지선구 △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행정실장 지상일 △ 인재교육원 인재교육원행정실장 김갑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부원장 김승준 △ 오창분원장 오세량 △ 미래연구정책본부장 오두병

◆**데일리비즈온** △ 부사장 이은광 △ 편집국장 신동훈

부음

▲추태호 씨 별세, 동훈(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수정(서울대효병원 의사) 씨 부친상, 성수인(한영회계법인 회계사) 씨 시부상 = 1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11시.

▲이복무씨 별세, 이상수(청주 상당경찰서장)씨 모친상 = 11일 오전 1시 30분, 청주시장례식장(목련공원) 목련특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43-291-4444

▲윤태한씨 별세, 윤갑근(전 대구고검장·변호사) 씨 부친상 =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 2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43-298-92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 고 문 의	02)721-9851,9826
독 자 센 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9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90호

NH농협은행, 환경부 공무원 은퇴설계 세미나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올(All)100플랜 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올All100플랜 아카데미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은퇴준비의 필요성, 그리고 금융상품을 활용한 은퇴준비에 대한 강좌와 은퇴관련 절세 비법 강좌로 구성해 인생이모작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NH농협은행

롯데홈쇼핑 직원·고객 등에 정보보호 캠페인 롯데홈쇼핑은 11일 정부가 지정한 정보보호의 날(매년 7월 둘째주 수요일)을 맞아 임직원, 고객,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이완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호 전문가인 정태명 한국CPO포럼 회장을 초청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 /롯데홈쇼핑

대상그룹, '휴가 전 헌혈' 캠페인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왼쪽 두번째)와 임직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대상 본사에서 대상그룹의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대상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대상그룹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수영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수영 전 문학과지성사 대표(사진)를 임명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수영 신임 원장은 그동안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로도스출판사 대표,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한 출판 분야 전문가다. 김 신임 원장은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됐다. 문체부는 김 신임 원장을 출판산업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흥원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아이소이 女환경연대에 세럼 판매수익금 전달

아이소이가 'i♡i 잡티세럼 리미티드 컬렉션' 완판과 함께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여성환경연대 저소득층 여성지원 사업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i♡i 잡티세럼 리미티드 컬렉션'의 수익금의 3%와 아이소이 브랜드 자체 기부금이 더해져 마련됐다. 아이소이의 리미티드 컬렉션은 여성들의 건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응원하는 i♡i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브라이언 레아와의 콜라보 아트가 녹아든 제품으로, 출시 한 달만에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이소이가 후원금을 전달한 '여성 환경 연대'는 지난해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물질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공론화하며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앞장섰던 단체다.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여성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